

완도군 산림복지로 1000만 관광 기틀 다진다

2026년까지 가용리 편백숲 산림공원에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문화·체험시설 확충

청정바다와 난대림을 품은 완도군이 오는 2026년까지 가용리 편백숲 산림공원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한다.

산림복지단지는 산림휴양·문화 시설을 확충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산림복지단지는 완도읍 가용리(산214-1번지) 휴면 균유림을 활용해 조성된다.

완도군은 최근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산림복지단지 밑그림을 완성했다.

산림복지단지는 축구장(7140㎡) 132개 크기인 94ha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 300억원 들어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치유의 숲, 목재 문화 체험장, 물놀이장 등 산림 문화·휴양·체험시설을 건립한다.

산림복지단지는 체험·교육 공간인 '자연휴양림' 지구와 '치유의 숲' 지구로 크게 나뉘어 조성된다.

'자연휴양림' 지구에는 숙박시설인 '휴양관'과 쉬 수 있는 '숲속의 집'을 배치한다.

이용객들은 산림레포츠센터와 톨라코스터 즐라인, 하늘 자전거 등을 갖춘 산림레포츠존을 즐길 수

있다.

문화존에는 목재문화체험관, 숲속놀이터, 테마 정원 등이 들어선다.

'치유의 숲' 지구에는 생애 주기별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는 '치유센터'와 '숲속 야영장'이 마련된다.

난대림 치유 숲길과 4가지 주제를 지닌 숲길이 조성돼 산림 치유와 해양 치유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지난해 9월 1억원을 들여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3개월간 추진했다.

완도군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인한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870억원으로 내다봤다.

수입 분야에서는 레포츠 시설 사용 수입이 34억 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료 수입 11억



오는 2026년까지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일원에 산림 휴양과 산림 치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축구장(7140㎡) 132개 규모의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된다. 산림복지단지 안 산림레포츠존 구상도. <완도군 제공>

3200만원, 치유센터 사용료 수입 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산림복지단지가 체류형 치유 관광객을 끌어들이 완도 1000만 관광객 유치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건설 단계 481명과 운영 단

계 158명 등 639명으로 예측했다.

완도군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4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군특)을 신청했다. 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신청해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 '한 달 여행하기'

19일까지 참가자 모집
하루 최대 15만원 지원

목포시가 장기여행하며 목포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여행코스과 숨은 관광자원을 홍보할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SNS(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를 통해 목포 관광 홍보가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공고일(5월 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 및 광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는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전남 22개 시·군 전체를 여행할 수 있지만 숙박은 목포에서만 해야 하며, 전체 여행 일정의 50% 이상을 목포에서 진행해야 한다.

참가자에게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을 포함해 1인당 하루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여행이 끝나면 개인 SNS에 홍보 게시물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19일까지 등기우편(목포시 양로로 203, 목포시청 관광과) 또는 이메일(maria1448@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박차

13개 사업장 23명 일자리 창출·지역정착 지원

신안군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3개 사업장에 23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신안군에 따르면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마을로 플러스, 농수산·디지털 혁신 유통 전문가 일자리 사업 등에 19세 이상 49세 미만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 기업은 마을로 플러스 사업은 경제, 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이며, 농수산과 디지털 혁신 유통 전문가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6억2000만원으로 참여 기업

에는 2년간 청년 근로자 인건비의 80%(최대 월 160만원)를 지원한다.

청년 근로자에게는 직무교육, 자기계발비, 주거비, 지역정착 희망자금 등의 혜택과 인건비 기간 종료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1년간 총 1000만원의 지역 정착 지원금도 지원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마을 사업장의 경제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한 확보"

'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 일자리·주거·교육 등 정책 논의

진도군은 최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인구감소에 대응할 기본·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한다.

진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매년 1조원씩을 10년 동안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연구 용역 결과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목표 등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정책과 제 발굴과 세부 사업안도 제시됐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보고회에 참석해 일자리·주



진도군(군수 김희수·가운데)이 최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인구감소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진도군 제공>

거·의료·교통·문화·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에 대해 논의를 했다.

또 진도군 인구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했다.

군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토의 결과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연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오는 6월 말까지 전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된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에 선정돼 재정 5억원을 확보했고, 전남도 인구정책 평가 장려상을 받았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

2024년까지 340억원 투입 물낭비 최소화...정수장 현대화사업도

해남군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78.4%까지 높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망 교체와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블록시스템과 유량감시 7시스템 구축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지난 2019년 61%의 유수율이 올해는 78.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시스템은 각 지역을 블록으로 구분해 유량을 감시함으로써 수압저하, 누수 발생 등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수도사고 예방과 물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년까지는 해남읍·송지면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 40km 구간을 중점 교체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85%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해남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해남정수장을 현대적으로 재건해 하루 4000t의 생활용수를 해남읍 일부지역과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현재 시설공사 추진을 40% 정도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40년 이상 경과된 해남취수장을 개량하는 '해남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54억원, 화산 삼마도 '섬지역 식수용 개발사업'에 18억원을 확보해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군 맑은 물 공급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돗물 현대화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군민 물복지 향상과 수돗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역 인재 '영암 스타 50인' 선발

영암군민장학회 연 300만원 지원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이사장 우승희 영암군수·이하 장학회)가 오는 22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군을 이끌어갈 '영암 스타'를 선발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영암 스타 50인'으로 학업·예술·체육 등 분야의 숨은 지역인재를 발굴해 재능계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된다.

장학회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올해는 우선 지역인재 30명을 선발한다.

해마다 선발 인원을 조금씩 늘려 2026년부터는 영암 스타를 50인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영암 스타 선발 대상은 영암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17~24세 학교

밖 청소년이다. 1차 서류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영암군장학회 이사회가 최종 선발한다.

영암 스타 1인에게는 재능계발비로 1년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선발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각각 최대 3년과 4년까지 지원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지난해 진행된 영암군민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전국 농업인 1만명

9월 해남에 모인다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해남군이 '2023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개최로 최종 선정됐다.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개최지 공모를 통해 선정위원회 현지 평가에서 대회 추진 준비성, 1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시설 확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사)전남친환경농업협회 주관으로 1만여명의 전국 친환경농업인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 농업인 대회다.

이번 개최지 결정으로 9월 중 이틀에 걸쳐 해남군 우슬경기장에서 대회가 열리게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광주일보기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사랑은 내리사랑?
이제 농지연금으로 올림사랑 하세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 직전 끝이 없던 우리 부모님 이제껏 받아온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고품격하게 떠나보고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선물하세요

농지연금이란?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작이나 안대로 인한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승계형' 가입 시 부모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7770 (www.fb.or.kr)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 (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